

두근두근... 금빛 드라마 시작된다

2월8일 새벽 1시(한국시각) 개막...17일 열전

85개국 98개 金 놓고 기량...한국, 톱 10 목표



‘눈과 얼음의 대축제’ 소치 동계 올림픽 개막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22회째를 맞는 이번 동계올림픽은 2월 7일 오후 8시14분(한국시각 8일 새벽 1시14분) 흑해연안 러시아 휴양도시인 소치(Sochi)에서 화려한 막을 올려 같은 달 23일까지 17일간의 열전을 펼친다.

대회 슬로건은 ‘Hot, Cool, Yours’(차갑고, 뜨거운, 당신의 것).

우리나라를 비롯해 85개국 2900여 명의 선수들이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등 7개 종

목(15개 세부 종목)에서 총 98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룬다.

이번 소치 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선수 73명, 임원 57명 등 총 1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루지 등 6개 종목에 출전한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한국 선수가 출전한 동계 올림픽은 48명이 나선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5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하고 봅슬레이 12명, 쇼트트랙 10명, 컬링 5명, 루지 4명, 피겨스케이팅 3명, 바이애슬론과 스킨래톤에서 2명씩이 소치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또 알파인스키에서 5명, 크로스컨트리 2명, 프리스타일 스키 5명, 스키점프와 스노보드 각 4명 등 스키 종목에서만 20명이 출전한다.

한국은 정부수립보다 6개월여 앞선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제5회 대회에 태극기를 앞세워 처음으로 참가했

다. 당시 우리나라는 임원 2명, 선수 3명을 파견해 처음으로 동계 올림픽 무대에 섰다.

한국은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7위(금 6, 은 3, 동 2)를 차지했고,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종합 5위(금 6, 은 6, 동 2)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에서 딴 메달은 금 23, 은 14, 동메달 8개 등 총 45개다.

대한체육회는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3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소치 대회에 이어 제23회 동계올림픽은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이상화

2014 소치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 일정 (한국시간 기준)

2. 8(토)	2. 10(월)	2. 11(화)	2. 12(수)	2. 13(목)	2. 15(토)	2. 18(화)	2. 20(목)	2. 21(금)	2. 22(토)	2. 23(일)	2. 24(월)
01:14 개막식 20:30 스피드 스케이팅 남 5000m 이승훈	22:00 스피드 스케이팅 남 500m 모태범·이규혁	21:45 스피드 스케이팅 남 500m 이상화	23:00 스피드 스케이팅 남 1000m 모태범	19:00 쇼트트랙 女 500m 심석희·박승희 23:00 스피드스케이팅 女 1000m 이상화	19:00 쇼트트랙 女 1500m 심석희·김이랑·박승희	22:00 스피드스케이팅 남 10000m 이승훈	00:00 피겨 여자 쇼트프로그램 김연아	00:00 피겨 여자 프리스케이팅 김연아	01:30 쇼트트랙 남 500m 女 1000m 남 5000m 계주 박세영·심석희 등	01:30 피겨 여자 칼리소 김연아	01:00 폐막식

김연아·이상화·심석희, 그 겨울 환희 한번 더...

■ 주목 받는 선수들

3회 연속 톱 10을 노리는 한국대표팀의 원동력은 ‘여성파워’다. ‘태극 전사’들은 소치 올림픽에서 4개 이상의 금메달로 3회 연속 세계 10위권 진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와 이상화는 한국 선수단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이자 슈퍼스타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김연아가 연출할 드라마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 피겨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김연아는 갑작스러운 오른발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피겨 여왕’다운 자태로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선수 김연아의 마지막 무대라서 더욱 눈길이 쏠리는 소치 올림픽이다.

무서운 질주로 올림픽 준비를 끝낸 이상화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신화를 썼던 이상화는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3회 연속 갈아치우는 등 업그레이드된 스피드로 결전의 시

겨울 여제 김연아·3연속 세계 新 이상화
쇼트트랙 ‘차세대 여왕’ 심석희 ‘金’ 유력
‘밴쿠버 기적’ 이승훈·모태범, 2연패 도전
모굴 스키 최재우·스노보드 김호준 상승세

간을 기다리고 있다.

메달밭으로 통하는 쇼트트랙에는 ‘차세대 여왕’ 심석희가 버티고 있다. 여고생 심석희의 목에 걸릴 메달 개수가 이번 올림픽의 관심사 중 하나다.

심석희는 열 차례의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면서 확실한 우승후보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왕밍이 부상으로 나마하면서 심석희와 한국의 금메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심석희를 앞세워 메달 수확을 준비하는 여자 대표팀에 비하면 남자 쇼트트랙 전망은 밝지 않다. 동표에서 적으로 만나게 되는 안현수가 러시아 대표선수로 올림픽 무대를 버리고 있다. 유럽선수권에서 4관왕을 찍은 안현수의 행보가 쇼트트랙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상화와 함께 ‘빙속 3총사’로 통하는 이승훈과 모태범에게도 2연패 도전이다.

이승훈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꾼 지 1년도 안돼 밴쿠버에서 금메달의 기적을 썼던 선수다.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승훈이 다시 한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노린다.

스피드스케이팅 단거리 간판스타 모태범도 ‘깜짝스타’가 아닌 진짜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칼을 갈아왔다. 4년 전 기대하지 않았던 모태범은 남자 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올림픽 스타가 됐다. 1000m에서도 은메달을 안겨줬던 모태범의 메달사냥은 계속된다.

실상 종목에서도 기적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 프리스타일 모굴 스키의 셋별 최재우, 스노보드의 김호준이 기대주. 사상 처음 출전권을 얻은 여자 컬링의 상승세도 거침없다.

한편 나주 출신의 박소연이 김연아와 함께 피겨대표로 소치 무대를 밟고, 고흥군청 소속의 문지희도 바이애슬론 대표로 나선다.

프리스타일 스키 중 이번 올림픽에 신설된 하프파이프 종목에 박희진(35·광주스키협회)이 출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소치를 빛낼 태극전사

기적을 꿈꾸는
여자 컬링 대표팀
구성 김지선, 이슬비, 신미성, 김은지, 엄민지

- * 2012 캐나다 세계여자선수권대회 4강
- * 2013 중국오픈 우승
- 아시아태평양대회 우승
- 동계유니버시아드 첫 은메달

연말뉴스

소치를 빛낼 태극전사

봅슬레이
원운중
출생 1985년 6월 17일
학력 성결대학교
체육교육 학사

- * 2011 국제봅슬레이연맹 아메리카컵 4차 대회 4인승 은메달
- * 2013 아메리카컵 8차 대회 2인승 금메달
- 아메리카컵 9차 대회 2인승 금메달
- 아메리카컵 5차 대회 2인승 금메달

연말뉴스

김연아